“쌍용차 지원 단정 어려워… 내달 만기 900억도 논의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車산업 간담회
마힌드라, 쌍용차 투자계획 철회
시중銀, 車 부품업체 대출 만기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한 쌍용자동차 지원과 관련해 “지원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지난 14일 열린 인도 현지 콘퍼런스콜에서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며 “쌍용차의 새 투자자가 생기면 우리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쌍용차를 인수해 지분 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75%를 가진 마힌드라가 지분매각을 포함해 대주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은 위원장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쌍용차의 산업은행 차입금 900억원 연장에 대해서도 “당장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약 2000억원의 순손실을 내 1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마힌드라는 지난 4월 2300억원의 투자계획은 철회하고 3년간 최대 400억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약 900억원을 갚을 길도 막막한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완성차 업계와 협력업체의 자금애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부품업체들은 1차 중견 협력업체들에 대한 만기연장 시행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을 위한 신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시중은행이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협력업체의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와 함께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은행은 자체자금을 활용해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후 마련될 ‘3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가운데 일부를 ‘프로젝트 공동보증’으로 운영해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가 보다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혼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다”며 “모든 협력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완성차 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당분간 완성차업체의 무신용장 무역거래(D/A) 한도를 유지한다. 무신용장 무역거래는 무역대금결제가 이뤄질 때 수입상 거래은행이 이를 보증하는 서비스다.

이들 은행은 무신용장 무역거래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다. 완성차 업체가 여유있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또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해외에 있는 협력업체가 자금지원을 못받아 담보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은행도 어렵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해외 현지법인에도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화생명, 디지털 중심 조직개편… 역량 강화

15개 사업본부 65개팀으로 변경
성과 창출 위해 임원도 팀원 가능

한화생명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15일 13개 사업본부 50개팀에서 15개 사업본부 65개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생명은 15개 사업본부 중 9개 사업본부를 디지털 및 신사업 추진 업무를 할 수 있게 구성했다. 본사 내 사업본부의 과반이 넘는 60%가 디지털 및 신사업 영역으로 개편된 것.

전체 임원 56명 중 디지털 및 신사업 담당 임원은 22명이다. 평균 연령은 45세로 전체 임원 평균 53세에 비해 젊은 임원을 배치해 디지털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

한화생명

져온 언택트 시대로의 환경변화, 제로금리의 현실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대외환경 변화는 물론, 보험시장 포화와 대형GA의 시장 지배력 확대, 카카오·토스 같은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까지 보험업을 둘러싼 경쟁 심화되고 있다”며 “스피디하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시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조직체계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 리더에게는 성과 창출에 필요하다면 임원도 프로젝트 조직의 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서 뒤쳐지면 미래를 선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OI추진실, MI실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했다”며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銀 “법인카드도 간편결제 가능”

최초 1회 인증후 실물카드없이 결제

IBK기업은행은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공용카드는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법인카드다.

기업공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최초 1회 인증 후에는 카드 실물없이 간편비밀번호, 지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페이북에서 이용가능하며, 공용카드 한 장당 최대 10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9월말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드 등록

과 인증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과 간편결제 이용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매월 실시하며, 당첨자는 익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SH수협銀

모바일 간편가입 ‘헤이 예금’

SH수협은행이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헤이(Hey) 정기 예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헤이 정기예금은 수협은행 모바일뱅킹인 헤이뱅크(Hey!BANK)와 파트너뱅크, 스마트웹뱅크 앱에서 모바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3개월이상 12개월이하이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없이 최고 연 1.4%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는 복잡한 우대금리에 지친 고객들에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스마트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삼성카드와 최대 연 7% 적금

SC제일은행이 삼성카드와 함께 최대 연 7% 부자되는 적금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SC제일은행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의 기본금리 연 1.6%(세전)에 추가로 최대 연 5.4%까지 캐시백 혜택을 더한다.

대상은 SC제일은행 삼성카드 첫 거래 고객 또는 직전 6개월간 삼성신용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으로, 퍼스트가계적금을 가입해야 한다.

적금 가입기간은 12개월이고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또는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캐시백 연 5.4% 혜택은 SC제일은행 제휴 삼성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해 매월 30만 원(연360만원)이상 사용하면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이나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

능하다.

캐시백 혜택은 적금 만기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캐시백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내 이벤트 페이지와 영업점, 고객컨택센터 또는 삼성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 플러스 멤버십 복합상품 출시

멤버십, 그룹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

신한금융그룹은 15일 신한플러스 멤버십과 연계한 그룹 복합상품인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과 ‘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신한플러스 멤버십은 지난 4월 신한금융의 우수고객 제도인 탑스 클럽(Tops Club)을 전면 개편해 금융권 최초로 멤버십과 금융거래 앱을 결합한 형태로 출시한 그룹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다.

‘신한플러스 멤버십 적금’은 최대 월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6개월 만기 자유(정기)적립식 적금이다. 선착순으로 50만좌를 한정 판매한다. 기본금리는 연 1.2%며, 적금 자동이체 연결 및 최근 3개월 간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각 0.3%포인트씩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1.8%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신한플러스 멤버십 가입, 신한체크카드 신규 및 이용, 신한금융투자 최초 신규거래, 신한생명 인터넷보험가입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6.5%의 리워드가 마이신한포인트 또는 캐시백 형태로 제공된다.

‘신한플러스 멤버십 체크카드’는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생활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1.7%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쇼핑가맹점이나 해외 사용시에도 0.7% 추가적립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